

## 한국소설의 재번역에 나타난 화법 변화와 번역가의 선택 - 『움직이는 성』 재번역을 중심으로

김 자 경  
(중앙대)

### 1. 서론

소설이 번역될 때 원문의 화법이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창수(2016: 236)는 원문의 화법 방식을 번역문에서 보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여기지만 사실 화법의 변화는 상당히 빈번하다고 지적했으며, 한미애(2016)는 소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화법이 유지되지 않고 바뀌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김경희(2018: 45)는 등장인물의 혼잣말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것인지도 번역가의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화법 번역이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가에 따른 차이도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이창수(2016, 2017)는 같은 소설을 옮긴 두 번역물에 나타난 화법 번역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세희와 최희경(2019: 174)은 『위대한 개츠비』의 두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소설도 번역가에 따라 시점이 달리 해석되고 서로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 독자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태도, 등장인물과의 거리 등을 달리 인식하고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

나 감정이입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누구의 눈과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독자에게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 번역에서 화법의 중요성이 크고, 화법 번역은 번역가의 해석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문학 번역가 브루스 풀턴(Bruce Fulton)과 주찬 풀턴(Ju-Chan Fulton)이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번역하여 1985년 출판한 *The Moving Castle*과 2016년 다시 번역하여 출판한 *The Moving Fortress*를 대상으로 사고제시와 직접발화에서 나타나는 전달절(reporting clause)의 변화와 단락 재구성, 시점 변화를 중심으로 화법 번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화법 번역 결과물을 원문이나 다른 번역가의 선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번역 경험을 쌓은 번역가가 다시 번역한 작품에서 달리 선택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이거나 평가적인 관점이 아니라 화법 번역에서 번역가가 선택 가능한 지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과 화법

문학 번역에서 화법의 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김경희 2018; 박선희 2015, 2018; 이창수 2016, 2017; 신혜정 2016; 정하연 2015; 조의연, 한미애 2012). 본 연구는 소설 『움직이는 성』의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화법 번역을 논의하고자 하므로,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에서 화법을 논의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미애(2011)는 송영의 『부랑일기』 번역본을 대상으로 자유직접화법과 자유간접화법이 번역본에서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으로 바뀌거나, 인용표시 없이 자유직접발화로 서술된 원문이 직접발화로 바뀌고,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등장 인물의 목소리인지 불분명한 원문이 이탤릭체로 명료하게 구분되어 번역되는 등 원문에 나타난 다양한 서술방식이 번역본에서는 대체로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의연과 한미애(2012)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자유직접화법의 번역을 살펴본 결과 원문의 서술방식이 유

지된 경우는 9.6%에 불과하며, 강성 자유직접화법은 대부분 직접화법으로 전환되거나 인용표시가 있는 약성 자유직접화법으로 전환되어 가독성은 높아졌으나 문맥적 함축의미가 사라졌고, 간접화법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으며 무표적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원문의 생동감이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 작품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화법 번역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들도 있으나, 두 번역가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화법 번역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이창수(2016)는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번역한 장왕록의 1980년 번역본과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 2005년 번역본을 대상으로 화법 번역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IT(Indirect Thought)와 FDT(Free Direct Thought)<sup>1)</sup>의 번역 방식에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1980년 번역본은 원문의 IT를 대부분 유지한 반면, 2005년 번역본은 FIT(Free Indirect Thought)로 바꾼 경우가 5개(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80년 번역본은 FDT를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2005년 번역본은 유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FDT는 전달절 없이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반면, FIT는 직접화법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서술자의 시점으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5년 번역본은 원문의 FDT를 더 많이 유지하는 동시에 IT를 FIT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더 생동감 있는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창수(2017)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번역한 김다희의 2008년 번역본과 김우창의 2012년 번역본을 대상으로 자유직접화법 번역방식의 차이를 정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8년 번역본은 전달절이 첨가된 직접화법 수가 원문보다 약간 늘어난 반면 2012년 번역본에서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 번역본은 직접화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달절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전달절에서 사용한 전달동사의 종류도 2008년 번역본에 비해 매우

1) 리치와 쇼트(Leech and Short 2013: 270-271)는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ID), 직접화법(Direct Discourse, DD)을 발화(Speech, S)와 생각(Thought, T)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발화(Direct Speech, DS)와 간접발화(Indirect Speech, IS), 직접생각표현(Direct Thought, DT)과 간접생각표현(Indirect Thought, IT)으로 분류하였다. 자유직접화법(Free Direct Discourse, FDD)과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FID)도 마찬가지로 분류하며, FDT는 자유직접생각표현(Free Direct Thought), FIT는 자유간접생각표현(Free Indirect Thought)을 뜻한다.

다양하며, 원문보다 등장인물이 수행하는 화행의 형태를 다양하게 묘사했다. 이처럼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대거 전환하고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전달동사와 부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번역가의 선택으로, 번역문의 독자는 등장인물의 말에 근거하여 추론함으로써 소설 세계를 재구축하는 경험을 공유하기 어렵고 원문의 문학적 가치를 변형시키는 번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자와 마샬 필(Marshall R. Pihl)의 『유형의 땅』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문체의 차이를 살펴본 이상빈(2019: 137-138)은 이탤릭체와 괄호 사용 방식의 차이로 화법 번역에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마샬 필은 등장인물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현하고 주어와 전달동사군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였으나 전경자는 이탤릭체 없이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전달하였으며, 마샬 필은 1인칭 주어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직접화법의 형식으로 표현한 반면, 전경자는 가주어와 3인칭 주체를 활용하여 인물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마샬 필은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생각을 서술했으나 전경자는 작품 밖의 전지적 존재가 독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누구의 관점으로 인물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번역가의 고민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한국문학의 화법 번역을 논의한 여러 연구를 볼 때, 화법은 번역가가 개입하여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으며, 원문의 문체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번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화법 번역은 번역가의 해석에 따른 선택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비판이 쉽게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원문과 비교하여 아쉬움을 찾거나 다른 번역가의 결과물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의하는 대신, 같은 번역가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번역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나타난 차이는 원문으로부터의 아쉬운 멀어짐이나 번역가 개인의 해석이나 문체의 차이라기보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학 번역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화법 번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가의 선택에 관해 의미 있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브루스 폴턴, 주찬 폴턴이 번역하여 1985년에 출

간된 작품과 다시 번역하여 2016년 출간된 작품을 토대로 인물의 생각과 발화 전달에서 나타나는 전달질의 변경, 단락 재구성, 시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법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황순원의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은 황순원의 후기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장편(강진호 2015: 33)으로, 1968년 5월부터 1972년까지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독교와 사머니즘의 갈등,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의 비극적 사랑과 구원의 문제를 고민한 작품으로 평가된다(김경훈 2018: 7).

『움직이는 성』은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이 번역하여 1985년 *The Moving Castle*로 출간되었고, 2016년 같은 번역가의 재번역으로 *The Moving Fortress*로 출간되었다.<sup>2)</sup> 이 작품은 총 4부로 구성된 장편소설이며, 본 연구는 1부(1~6장)만을 대상으로 화법 번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두 번역본은 이탤릭체와 인용부호의 활용에서 변화를 보여준다. 아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TT1985는 지문 속에 삽입된 인물의 생각이나 대화문을 원문 형식 그대로 옮겼으나 TT2016은 인물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인용표시 없이 지문 속에 포함된 대화문에 인용부호를 추가하였다.

예문(1)

ST: 성호는 꺾어온 꽃들을 무덤 앞에 놓았다. 오늘은 당신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또 외출을 한 겁니다.

TT1985: Söng-ho placed the cut flowers in front of the grave. Today is

2) 1985년도 출간본은 TT1985, 2016년도 출간본은 TT2016으로 지칭한다. 이 작품은 1973년 삼중당 단행본에서 대폭적 개작이 이루어졌고(강진호 2015: 34) 번역과 재번역은 문학과지성사의 1982년 단행본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본고는 해당 판본을 구하지 못하여 문학과지성사의 1994년 판본을 토대로 하였다. 또한 ‘재번역’은 다른 번역가의 번역 결과물을 의미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같은 번역가가 다시 번역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your birthday. So today we're having another outing.

TT2016: Sõngho placed the bouquet and felt the small gravestone. *It's your birthday, dear, and here we are on another outing.*

예문(2)

ST: 그걸루 무슨 병을 고친다는 걸까 윈. 글썸 두 돌이나 지난 애가 뒤채 지두 못헐대요, 그 병엔 옛날 관에 칠한 옷을 대려먹이면 낫는대나요. 그 령다구 박물관 물건을...

TT1985: How could she say she'd cure an illness with that? Good Lord! Well, she said the child couldn't turn himself over, and he's more than two years old, and if she boils a bit of lacquer from the coffin for a long time and feeds it to him, he'll get better. Even so, something in a museum...

TT2016: "For god's sake," came a voice from nearby. "What could she hope to cure with that?"

"Well, she said the boy's two years old but he still can't turn himself over—she figures she can fix him if she boils up some coffin lacquer. Still, in a museum and all?"

다만 본 연구는 번역가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등장인물의 생각과 발화 전달에서 나타나는 전달질의 변화 및 단락 재구성, 시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법 번역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화법 번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가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볼 재번역본의 변화를 예문과 함께 정리하여 2022년 3월 브루스 폴턴, 주찬 폴턴 번역가에게 번역가의 의도에 대해 이메일로 여쭙보고 답변을 받았으며<sup>3)</sup>, 이렇게 받은 번역가의 설명을 각주로 추가한다. 번역가의 선택에 관한 논의에서 번역가의 목소리가 덧붙여질 때 그 선택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거의 40여 년 전의 번역이고 재번역이 이뤄진 것도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내린 선택들도 있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신 두 분 번역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4. 분석 결과

### 4.1 사고제시에 나타난 전달절의 변화

리치와 쇼트(2013: 271)에 따르면, 직접생각표현(Direct Thought)과 간접생각표현(Indirect Thought)은 인물의 생각임을 표시하는 전달절이 있고, 전달절이 생략되면 더 자유로운 유형인 자유직접생각표현(Free Direct Thought)이나 자유간접생각표현(Free Indirect Thought)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고제시에서의 전달절을 살펴본 결과, 재번역본에서는 전달절이 삭제되고 더 자유로운 유형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문에는 없었던 전달절을 TT1985에서는 추가했으나 TT2016에서는 삭제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문(3)

ST: 당신은 이런 밝은 것을 싫어했지.

TT1985: You didn't like it bright like this, did you? *thought Sōng-ho.*

TT2016: *You didn't like it bright like this, did you, dear.*

재번역에서는 이탤릭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전달절 없이도 독자가 성호의 생각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번역본에서 추가했던 전달절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원문에 전달절이 있는 경우에도 재번역에서 삭제한 것으로, TT1985에서는 원문의 전달절을 빠짐없이 옮겼으나 TT2016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sup>4)</sup>

4) 주찬 폴턴은 재번역에서 전달절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점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4)에서는 'he thinks'를 삭제하는 대신 'or was he?'를 추가했고, 예문(5)에서는 'his eyes came to rest on her face'라는 앞 문장에서 인물의 눈이 상대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므로 'think'가 필요하지 않고, 예문(6)에서는 바로 뒤에 'It was a one-in-a-million chance, but what if he ran into her?'라는 문장이 있으므로 독자가 생각임을 추측할 수 있고, 예문(7)에서는 'maybe', 예문(8)에서는 'for sure'가 'thought'를 대신하며, 예문(9), (10), (11)은 의문문의 활용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문(4)

ST: 그 여자와 자기는 주고받을 것도 끝났다고 생각한다.

TT1985: Now the transaction with that woman is finished, he thinks.

TT2016: He was done with that woman. Or was he?

예문(5)

ST: 이 얼굴은 반쯤 옆이 됐을 때가 그중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TT1985: In this half profile her face is most beautiful, he thinks.

TT2016: In half profile it was beautiful.

예문(6)

ST: 하지만 우연이란 게 있는 법이거든, 하고 준태는 생각했다.

TT1985: But coincidences do happen, he thought.

TT2016: But coincidences do happen.

예문(7)

ST: 어쩌면 모든게 왜나갈 대로 왜나간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그였다.

TT1985: Perhaps, he thought, everything is going its course.

TT2016: Maybe it was meant to be.

예문(8)

ST: 그러나 준태는 생각한다. 번역하는 원서나 원고몽치같은 것을 싸들고 다니기에는 노상 알맞은 보자기지. 그럼, 필요한 물건이고 말고.

TT1985: But then it was always good for wrapping up the things he carried around with him, like bundles of manuscript and the books he'd been translating. Of course I need it, he thought.

TT2016: But it did come in handy when he was out and about with bundles of manuscript and books he was translating. For sure he needed it.

예문(4)~(8)을 보면 TT1985는 원문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여 전달절을 포함하고 있으나 TT2016에서는 인물의 생각임을 전달하는 인용표지가 생략되었다. 이처럼 전달절을 생략하여 더 자유로운 사고제시 유형으로 바꿈으로써 서술자의 개입을 줄이고 인물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9)

ST: 인가인지 무슨 감시소같은 건지 알 수 없었다.

TT1985: He couldn't tell if it came from a dwelling or from some military checkpoint.

TT2016: A dwelling? A military checkpoint?

예문(10)

ST: 아주 정교했다. 지연은 실용품이면서도 이렇듯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한다.

TT1985: Absolutely exquisite, Chi-yŏn thought. Once again she was amazed that an item of practical use could yet remain so beautiful.

TT2016: It was so delicate. How could an item be so practical and yet so lovely?

예문(11)

ST: 춘태는 혼잣속으로 뇌인다. 내게서 담뱃불을 옮겨가지고 간 사람. 어느 길거리에서 옷을 스치고 지나가도 모르고 지나칠 사람. 그러면 그런 대로 상관없는 사람. 내 책을 사간 그 여자도 이와 빛이 다르랴.

TT1985: Chun-t'ae says to himself: The man who got a light from me and left. A passerby I wouldn't know even if we brushed against each other on the street again. And if so, a nobod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him and the woman who bought my books?

TT2016: *He bummed a light from me. A man I wouldn't recognize if we ran into each other again. A man who means nothing to m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him and the woman who bought my books?*

이창수(2016: 243)는 폴턴의 번역본에서 전달절 없는 사고제시 유형으로 바꾼 경우가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FDT와 IT가 혼합된 과거형 의문문의 형태로 전달하여 인물의 생각을 서술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문(9), (10)도 TT1985와 달리 TT2016은 생각을 설명하는 인용절을 삭제하고 의문문으로 옮김으로써 더 자유로운 사고제시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문(11)에서도 TT2016은 'Chun-t'ae says to himself'를 삭제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줄이고 인물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달절을 삭제만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달절을 추가하거나 표현을 바꾼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문(12)

ST: 흰 타일을 입힌 크지는 않으나 아담한 집이었다.

TT1985: Adorned with white tile, the house was not large but looked cozy.

TT2016: ... adorned with white tile. A comfortable-looking house, thought Mingu—just the right size.

예문(13)

ST: 장정이 무덤의 잔디를 깎으며 잡풀을 뽑아낸다. 풀냄새가 주위에 풍겼다. 이 냄새도 우리 마음껏 맡읍시다.

TT1985: The man trims and weeds the grass on the grave. The smell of the grass floated all around. Let's take in this smell too, for all it's worth.

TT2016: The smell of cut grass wafted about as the man trimmed and weeded the mound. One last time Sōngho silently addressed her: Can you smell it? Let's enjoy—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원문에는 누가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전달절이 없고 TT1985에서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전달절이 없으나 TT2016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었다.<sup>5)</sup> 예문(12)에서는 ‘thought Mingu’를 추가하여 집에 대한 설명이 서술자가 아니라 민구의 생각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예문(13)에서는 무덤 앞에서 흥여사를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 맞춰 ‘One last time Sōngho silently addressed her’를 추가하여 인물의 생각임을 전달하는 동시에 분위기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예문(14)

ST: 그렇다고 준태는 아내의 방종을 자기가 남편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  
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저 부부가 된 이상 살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살아  
보자는 생각이었다.

5) 주찬 폴턴은 소설을 번역할 때 작가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문(12)는 집에 대한 설명이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민구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예문(13)은 생일날 묘소를 찾은 성호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TT1985: Nevertheless, Chun-t'ae didn't think that he could prevent his wife's indulgences. As long as we're a couple, let's just live together as long as we can, he thought.

TT2016: What could he as a husband do to rein in his wife and her indulgences? Since they were a couple, they might as well try to put up with each other—such as his belief.

예문(15)

ST: 지금도 민구는 그 마포 박수와 변씨를 놓고 생각한다. 마포 박수처럼 변씨 역시 어떤 그늘진 열등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의 반대인 햇님신이 실린 거고, 것처럼 여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닐까. 그 그늘진 열등의식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호기심과 함께, 민구는 자기가 변씨에게 너무 무안을 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렸다. 쉬 한번 만나자. 현금으로는 받지 않으니 다른 무엇으로라도 창부옷값의 사례도 하고.

민구는 몸을 일으켜 교수실을 나섰다.

TT1985: Min-gu compares this shaman and Pyön. Isn't it that Pyön, like the Map'o shaman, maintains a gloomy inferiority complex and because of that is possessed by the sun god, the opposite of darkness, and wants to become a woman? What could this inferiority complex be, really? Min-gu also wondered whether he had shamed Pyön. I'll have to see him before long. Since he didn't take any money for the *ch'angbu* costume I'd better make it up to him with something else.

Mingu gets up and leaves his office.

TT2016: Mingu's thoughts returned to Pyön. Didn't Pyön, like the Map'o *paksu*, have an inferiority complex? Didn't he wish he were a woman? And wasn't it his dejection that led to his possession by the sun spirit, who represented the opposite of darkness? What exactly was it that shadowed him in his inferiority complex? Mixed with Mingu's curiosity was the nagging thought that he had embarrassed Pyön the previous day. He ought to look him up. Since Pyön wouldn't take money for the *ch'angbu* custom, he would have to make it up to him some other way. With these thoughts Mingu left his office.

위 예문은 생각을 표현하는 인용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문(14)의 경우, ‘생각지 않았다’, ‘생각이었다’라는 원문 표현이 TT1985에서는 그대로 옮겨졌

으나 TT2016에서는 앞 문장의 전달절을 생략하고 의문문으로 바꾸었으며, 다음 문장에서는 대시를 활용하고 ‘thought’에서 ‘belief’로 바꾸어 인물의 생각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도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예문(15)에서는 원문의 첫 문장을 통해 민구의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데, TT1985에서는 박수와 변씨를 비교한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구의 생각이 이어진다는 것을 전달했으나 TT2016에서는 첫 문장에서 비교한다는 표현을 빼고 생각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린 후 마지막 문장에서 원문에 없었던 ‘with these thoughts’를 추가함으로써 생각의 시작과 끝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 4.2 직접발화에서 나타난 전달절의 변화

리치와 쇼트(2013: 258)에 따르면 직접발화(Direct Speech)에는 ‘누가 말했다’라는 표현으로 화자를 설명하는 전달절과 인용부호 속의 피전달절이 존재하며, 전달절 없이 대화문만 있으면 더 자유로운 형태인 자유직접발화(Free Direct Speech)가 된다. 한국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직접발화의 전달절은 빈번하게 생략되는데, 이창수(2017: 153)는 한국소설의 영어번역에서 원문의 자유직접발화 대화문에 전달절을 추가하여 직접발화의 형태로 바꾸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어와 달리 종결어미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 예를 들어 영어로 번역할 때 발화자를 밝히는 지시문을 생략하고 한국어식 행갈이 단락 구성을 하면 발화자를 알기 어려워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 발화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권은희, 성초림 2014: 13-18). 『움직이는 성』에도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표지가 생략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발화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TT1985의 경우 원문에 없었던 발화자를 추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재번역에서는 기존의 번역문에 추가되었던 전달절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문(16)

ST: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군.”

TT1985: “Huh—that means I’m the chosen one,” said Söng-ho.

TT2016: “So, I’m the chosen one.”

예문(17)

ST: “누구한테서 온 무슨 전화길래요?”

TT1985: “What’s this all about? Who was it?” asked Ŭn-hŭi.

TT2016: “Why? Who was that?”

예문(18)

ST: “취하지 말란 말은 있지.”

TT1985: “But it says not to get drunk, right?” Sŏng-ho responds.

TT2016: “But it says not to get drunk.”

예문(16)을 보면 원문에서는 성호와 민구의 대화문 16개가 길게 이어지는데 도중에 발화자를 한 차례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TT1985는 ‘said Sŏng-ho’를 추가했으나 재번역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화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독자가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번역문에서 추가했던 전달절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예문(17), (18)에서도 원문에는 발화자가 설명되지 않았으나 TT1985에서는 추가했고 TT2016에서는 삭제했다.<sup>6)</sup> 전달절을 추가하여 직접화법으로 바꾼 TT1985와 달리, TT2016은 기존 번역문에 추가되었던 전달절을 삭제함으로써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번역에서는 원문에 있었던 발화자에 대한 설명까지 삭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예문(19)

ST: “저 교회에 나가구 있어요. 결국 전도사님 영향이죠.”

“그거 빅뉴스데.” 성호가 그대로 새 화제에 들어와준다.

TT1985: “I’m attending church. You had some influence on me after all.”

“That’s big news.” Sŏng-ho smoothly took up the new topic.

TT2016: “Guess what—I’ve been going to church. You’ve had an influence on me after all.”

“Now there’s some good news.”

6) 주찬 풀턴은 화자가 앞에서 명확하게 소개되어 혼동이 우려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것이 영어권 독자의 관점에서 더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으므로, 화자의 혼동이 우려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달절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예문(20)

ST: “그치만 그 계시를 하는 측이나 받는 측이 기독교의 것이 아니어서 안된다 이진가?” 민구가 이죽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TT1985: “But making and receiving revelations isn’t Christianity, and therefore it just won’t do. Isn’t that it?” said Min-gu in an insinuating tone.

TT2016: “But making and receiving revelations isn’t Christan? Is that what you were going to say?”

예문(21)

ST: 은희가 껌싸게,

“또, 또? 담배 찾는 거죠?”

TT1985: “There you go again!” Ŭn-hŭi promptly said. “You’re looking for cigarettes, aren’t you?”

TT2016: “There you go again! You and your cigarettes.”

예문(22)

ST: “그래요? 지금 어디 살죠?” 민구는 솔깃했다.

TT1985: “Really? Where does she live?” Min-gu asked enthusiastically.

TT2016: “Really! where does she live?”

예문(23)

ST: 성호는 평이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래서요?”

TT1985: “Yes?” Sŏng-ho said, looking at him.

TT2016: “Yes, it is. Why do you ask?”

예문(19)~(23)은 TT1985와 달리 TT2016의 경우 대화문에서 발화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가 과감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누가 발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외에도 ‘그대로’, ‘이죽거리는’, ‘껌싸게’, ‘솔깃’, ‘바라보며’ 등 발화행위와 관련한 발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표현이 기존 번역문에서는 충실히 전달되었으나 재번역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발화자의 태도나 감정상태에 대한 설명은 인물의 화행에 대한 해석에 명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이 재번역에서 생략되면서 화행에 대한 해석

의 측면에서 독자가 해야 할 몫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설 대화문에서 자유직접화법은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상태, 대화자 상호간의 태도 및 대화 상황을 서술자가 직접 기술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독자가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Leech and Short 2007: 132-133, 이창수 2017: 165에서 재인용)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번역에서는 독자가 인물의 말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 소설 세계를 재구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유지하고 때로는 원문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유직접화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번역문과 원문의 전달절을 생략하는 방식만 나타난 것은 아니며, 기존에는 전달절을 추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전달절을 삽입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문(24)

ST: “어디 교회 장로가 우리 아버지 혼자뿐인가요?”

TT1985: “Do you think my father’s the only elder in the church?”

TT2016: “Father’s not the only elder in the church,” said Ūnhŭi.

예문(25)

ST: “뿔이구 들구 나오른 되잖아?”

TT1985: “Can’t you sneak something out?”

TT2016: “Can’t you sneak out with something to sell?” asked Kōri.

예문(26)

ST: “오빠나 동생 누가 농학에 관계된 일이라두 하구 계신가요?”

TT1985: “Who is it that’s involved with agriculture, one of your brothers?”

TT2016: “I’m wondering,” said Chunt’ae, “do you have a brother who’s in agriculture?”

예문(24)~(26)은 원문에는 없었던 전달절이 재번역에 추가된 사례를 보여준다. 즉, 발화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독자가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문의 전달절도 생략하지만, 독자가 발화자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이 발화할 때 전달

절의 추가가 이루어졌다. 예문(24)에서는 은희, 예문(25)에서는 고리가 대화 장면에서 새롭게 등장하며 입을 열었고, 예문(26)의 경우에는 선행 문장이 지연의 생각으로 마무리되고 후행 문장은 준태의 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독자가 지연과 준태 중 발화자가 누구인지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달절은 보통 인용절의 화자를 지시하는 지시어와 전달동사로 구성되는데(이창수 2017: 154) 지시어나 전달동사에서도 변화도 나타났다.

예문(27)

ST: “저리구두 비 새지 않아?”

“아직은…… 내년 봄엔 손을 좀 봐야겠어.”

TT1985: “Doesn’t it leak, the shape it’s in?” asked Min-gu.

“Not yet... it’ll need some fixing up next spring, though.”

TT2016: “That roof must have sprung a few leaks?”

“Not yet,” said Sŏngho, “I’m keeping my fingers crossed. It’ll need some fixing by next spring, though.”

예문(28)

ST: “이만하시길 다행입니다.”

TT1985: “It’s fortunate it wasn’t worse than this,” said Chun-t’ae.

TT2016: “I guess it could have been worse,” he ventured.

예문(27)에서 민구와 성호의 대화 장면을 보면 원문에는 발화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TT1985에서는 ‘asked Min-gu’를 추가했으나, TT2016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said Sŏngho’를 추가했다. 기존 번역문에서 삽입했던 발화자를 재번역에서 변경한 것이다.<sup>7)</sup> 예문(28)에서는 전달동사 ‘said’를 재번역에서 ‘ventured’로 수정하여 화자의 태도를 좀 더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처럼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직접발화의 전달절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때로는 지시어나 전달동사와 같은 전달절의 표현을 수정하는 등 번역자의 다양한 선택을 볼 수 있었다.

7) 주찬 풀턴은 이러한 변화를 대화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언급하였으며, 예를 들어 예문(27)은 성호가 지붕을 보면서 생각하는 장면이기에 두 문장을 연결하며 화자를 추가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 4.3 대화문과 사고제시에서의 단락 변경

이선옥(2017: 330)은 소설 번역에서 단락의 변경은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흐름의 전달을 방해하고 소설의 서술양식을 해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신혜정(2016: 99-100)에 따르면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도 화자의 변화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는 영어식 단락 구성을 따랐으며, 대화문뿐만 아니라 서술 부분에서도 한국어 원문과는 다르게 단락을 나눈 경우가 발견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TT2016의 경우에는 TT1985와 달리 한국어 원문의 단락 구성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특히 지문 속에 포함된 대화문의 번역에서 인용 부호를 추가하고 대화문을 별도의 행으로 나누어 단락을 변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예문(29)

ST: 춘태가 어느쪽으로 발길을 돌릴까 하고 있는데 지연이 말했다. 박물관 구경하시지 않겠어요?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공통된 대화를 갖지 못한 당장의 서먹한 분위기를 그걸로나마 면해보려는 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TT1985: As Chun-t'ae was wondering which way to go, Chi-yŏn suggested going in the museum. They lacked something to talk about, and a desire to escape this awkward situation may have been at work deep within her mind.

TT2016: Chunt'ae hesitated—where next?

“Shall we check out the museum?” said Chiyŏn, wanting to break their awkward silence.

예문(30)

ST: 손에 낫이 들려있었다. 별초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성호는 잘됐다 싶어 그러기로 했다.

TT1985: He was carrying a sickle, and asked if he ought to tidy up the grave. Great, thought Sŏng-ho. He decided to have it done.

TT2016: He was carrying a sickle.

“Would you like the grave tidied up?”

Good timing, thought Sŏnggho, and he said yes.

위 예문을 통해 재번역에서 직접대화문으로 바꾸고 행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문(29)를 보면 TT1985의 경우에는 지연의 말을 간접화법으로 넣었으나, TT2016은 이를 직접화법으로 바꾸면서 행을 나눠 준태의 생각과 분리하였고, 예문(30)에서도 TT1985는 벌초꾼의 제안과 성호의 생각이 원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으나 TT2016에서는 단락을 변경하여 벌초꾼의 제안과 성호의 생각을 분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대화문의 줄 바꿈 형식에서 누가 한 발화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변화에 따라 단락을 나누는 영문식 단락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문(31)

ST: 밥그릇을 들여다 걸이와 마주앉아 숟가락을 놀리던 전주댁이, 밥술 아가리에 처넣는 것도 웬수여, 한다. 걸이가 밥알을 흘린다고 야단인 것이다.

TT1985: Bringing out the bowls of rice, Chōnju Auntie sits across from Kōl-i. While working her spoon she says, “Is it too damn much trouble to stuff a few spoonfuls o’rice into that yap o’yours?” Kōl-i has dropped some grains of rice.

TT2016: Back inside, Chōnju Auntie and Kōri hunkered down across from each other at the knee-high dining table. Seeing Kōri drop a few grains of rice, Chōnju Auntie stopped working her spoon.

“Is it too damn much trouble to stuff a spoonful of rice into that yap of yours?”

예문(32)

ST: 그동안 지연의 콧등의 기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무척 건강해졌는데? 좋은 개가 즐겁게 해드려서 그런가?”

TT1985: Most of the discoloration on the bridge of her nose seems to have disappeared.

“You’re looking well. Maybe it’s because these good dogs have been entertaining you?”

TT2016: “You’re looking well,” Sōngho said, noticing that the discoloration on the bridge of her nose had mostly disappeared. “Are those good dogs cheering you up?”

대화문을 분리하면서 위치도 재배치하는 단락 변경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예문(31)의 경우 원문에서는 ‘겉이가 밥알을 흘린다고 야단인 것이다’라는 지문이 전주택의 발화 뒤에 나오고, TT1985에서는 원문과 같은 순서로 번역되었으나, 재번역에서는 전주택의 발화를 행갈이를 통해 나누는 동시에 위치도 뒤쪽으로 변경했다.<sup>8)</sup> 원문과 달리 대화문의 위치가 뒤로 옮겨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단락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대화문이 앞 지문에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32)에서는 TT2016의 경우 발화자를 추가하고, 대화문 앞에 별개의 단락으로 제시되었던 지시문을 대화문 중간에 삽입하였다.<sup>9)</sup> 신혜정(2016: 110)은 지시문이 대화문의 앞에 나오는지 중간에 나오는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며, 중간에 삽입할 경우 말과 행동의 동시성을 부각시키고 행동으로 말을 뒷받침하며 강조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재번역에서는 원문과 달리 지시문을 대화문과 별도의 행으로 나누지 않고 대화문 중간으로 위치를 옮기고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표현인 ‘noticing’을 삽입하여 성호가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는 상황으로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말과 행동의 동시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혜정(2017: 867)은 한국소설의 영어번역에서 원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지시문의 위치를 이동하고 단락을 재구성하는 것은 담화 통제나 독자와의 거리, 대화 상황의 이해도 측면에서 유용한 번역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번역에서 대화문의 단락을 나누어 발화가 더 부각된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예문(33)에서 민구의 발화를 직접화법으로 바꾸고 단락을 나누어 ‘남자가 그리워요’라는 발화가 주는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고, 예문(34)에서도 ‘저 공소리 좀 들어보세요’라는 지연의 발화에 인용부호를 추가하고 행을 나누어 발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8) 브루스 풀턴은 인용 표시를 추가하고 직접 대화문으로 바꾸면서 행을 나누어 화자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대화에 변화를 주면서도 문장이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데, 예문(31)은 전주택이 화를 내는 이유를 독자에게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9) 주찬 풀턴은 예문(32)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화에서 눈으로 관찰하며 입으로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예문(33)

ST: 그러다가 돌연 뛰어오르는 것을 멈추고는 언제나 무당들이 춤을 멈출 때 그러하듯이 몸을 왼쪽으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렸는가 하자 민구의 무릎 위에 상반신을 던져왔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신음이라도 하듯, 남자가 그리워요, 하는 게 아닌가.

TT1985: Suddenly his leaps stopped, and, turning one revolution to the left, as shamans do when they finish a dance, he threw himself in Min-gu's lap and moaned that he needed a man.

TT2016: Suddenly the leaping stopped and Pyōn, turning one revolution to the left as shamans do when they finish a dance, threw himself into Mingu's lap.

"I need a man," he moaned.<sup>10)</sup>

예문(34)

ST: 춘태가 이 흰빛에 시선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있느라니까 지연이, 저 공소리 좀 들어보세요, 한다.

TT1985: Listen to the sound of the ball, Chi-yōn says to Chun-t'ae, whose eyes are transfixed by the white color.

TT2016: that whiteness captivated him.

"I like the whack of the racket against the ball," she said.

김홍수(2000: 121)에 따르면, 지문 속에 삽입된 대화는 인물의 대화를 주로 사건이나 정황 서술의 일환으로 처리할 때 쓰이고 서술 맥락의 응집성이 강화되는 한편 대화의 직접성이나 현장성은 줄어든다. 이를 고려할 때, 위 예문의 경우 인물의 대화를 지문 밖의 문장으로 분리함으로써 발화 내용의 직접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번역에서는 인물 발화에서 행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제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예문(35)

ST: “고구마두 꽃이 핍니까?”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응당 나올 만한

10) 브루스 폴턴은 직접대화문으로 바꾸면서 더 ‘생기 넘치는(lively)’ 대화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주찬 폴턴은 생동감과 현실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문이다.

TT1985: “So even a sweet potato blooms?” asked a student. It was a natural, worthwhile question to ask, thought Chun-t’ae.

TT2016: “So a sweet potato blossoms?” asked a student.

Reasonable enough, thought Chunt’ae.

예문(36)

ST: 이때 밑으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소임잔 어디 있소오! 역시 사람이나 소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이 환히 들려왔다. 저런 소리도 우리 마음놓고 들어봅시다.

TT1985: Again the voice from below: “Where’s the owner of that cow!” Again neither man nor animal appeared—there was only the voice, plainly audible. Even a sound like that we can relax and listen to, thought Sōng-ho.

TT2016: Again came the voice from below: “Whose cow is that!” Again neither man nor beast appeared. There was only the piercing voice.

Can you hear it? It’s not bothering you, is it?

예문(35)에서는 준태의 생각을 학생의 질문과 행을 나누어 별도의 단락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문(36)은 성호의 내적 독백에서 단락을 나누어 인물의 생각을 분리해주고 있다.<sup>11)</sup>

창애의 번민을 보여주는 내적 독백에서 나타난 단락 변경도 흥미로운데, 원문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고 TT1985도 단락 차원에서 원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번역에서는 창애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었다.<sup>12)</sup>

11) 주찬 폴턴은 예문(35)은 준태의 목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예문(36)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번역문에서 생동감을 만들어내고 독자에게 현실감을 주기 위해 이처럼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2) 주찬 폴턴은 단조롭고 긴 문장에 변화를 주고 독자가 창애의 번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라 설명하며, 영어권 독자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전지적 작가나 주인공 중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예문(37)

ST: 이날밤 창애는 잠들어있는 남편과 떨어진 자리에 누워 어둠 속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우리들 부부는 어째서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됐을까. 내 탓일까. 모든게 내 탓만일까. 표면상으론 그럴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 대한 그의 무관심은 견딜 수 없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거다. 남편은 왜 내게 대해 그토록 무관심할까. [중략]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생활을 이대로 질질 끌고만 가는 건 모욕이다. 그 누구에게도 모욕이다. 창애는 크게 뜬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떻게든 이 생활을 청산해야지.

TT1985: That night Ch'ang-ae, slightly removed from her sleeping husband, lay in the darkness, her eyes wide open. How could the two of us reach this point? Could it be my fault? All my fault? Maybe it looks that way on the surface. But I can't stand his indifference toward me. I really can't stand it. How could my husband be that indifferent? [중략] It's an insult to scrape along like this for nothing. It'd be an insult to anyone. Somehow I've got to wind up this life. Ch'ang-ae repeated this to herself as she stared wide-eyed into the darkness.

TT2016: Lying apart from her sleeping husband, eyes wide open in the dark, Ch'angae asked herself how they had arrived at this point.

*Is it my fault? Is it all on me? Maybe on the surface. But I can't stand his see/no-see attitude toward me. I really can't. How can my own husband not give a damn about me? [중략] It's an insult to scrape along like this for nothing. An insult to anyone. I've got to make a clean break.*  
She continued to stare wide-eyed into the darkness.

예문(37)을 보면, TT1985와 TT2016 모두 ‘어떻게든 이 생활을 청산해야지’라는 마지막 문장이 앞으로 이동했다. 재번역에서 달라진 것은, ‘우리들 부부는 어째서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됐을까’ 문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만들고, 다음 문장부터 이어지는 인물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하나의 긴 단락으로 분리한 후, ‘창애는 크게 뜬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속으로 되뇌었다’를 별도의 단락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속으로 되뇌었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창애의 생각이 전달되기 전인 앞 단락에서 ‘Ch'angae asked herself’를 추가하였다. 즉, 원문에서는 서술과 인물의 생각이 같은 단락에서 오가고 있으나 재번역에서는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지시문을 제공하고 단락 재구성을 통해 인

물의 생각을 분리함으로써 좀 더 친절하게 독자가 인물의 생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4 시점의 변화

김경희(2018: 51)는 혼잣말이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탤릭체를 사용할 것인지는 번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TT2016에서도 인물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래 예문처럼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예문(38)

ST: 그게 도리어 내 시선과 관심을 끄는 것일까. 내가 저번 이사람 책을 거의 충동적으로 산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

TT1985: Could this be what draws my gaze and attention? Is this the reason I bought his books almost on impulse?

TT2016: Maybe that explained why he'd caught her attention at the bookshop and she'd felt the impulse to buy the books.

원문에서는 등장인물 지연이 ‘나’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생각을 전달하고 있으며 TT1985에서는 이 목소리가 유지되고 있으나, TT2016의 경우에는 지연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1인칭 화자가 3인칭 서술자로 시점이 바뀌었다.<sup>13)</sup> 이와 같은 변화는 6장에서 준태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문(39)

ST: 대체 이 홀가분한 기분은 무얼까. 아내와의 생활에서 부자유를 느껴 온 것도 아니었다. 서로가 상대방을 되도록 구속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터였다. 그렇건만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지불식간에 지난날의 하숙생활을 은근히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 그것이 아내에게 내가 무관심한 걸로 비쳐,

13) 주찬 풀턴은 장편소설에서 여러 주인공이 나올 때 혼동을 일으킬 여지를 피하고 생각을 이탤릭체로 ‘많이’ 쓰는 것이 독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주고자 3인칭으로 번역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한거나 아닐까. 그렇다면 잘못은 아내에게보다 내게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그 잘못을 따져보았던들 무엇하랴. 앞으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의 생활을 새로 시작해보는 거다.

TT1985: What's this light-hearted feeling all about? It's not that I've felt restricted living with her. We've tried as much as we could not to restrain each other. Still, even after getting married, wasn't there a subtle yearning in my unconscious for the boardinghouse life of the old days? Didn't that make me appear indifferent to her? Didn't it change her? If that's the case, then it's more my fault than hers. But what's the use of trying to blame someone at this point? From now on we'll try to start new lives. She does what she wants, I do what I want.

TT2016: This light-hearted feeling was a pleasant surprise, and one he didn't quite understand. It wasn't that he felt constrained with Ch'angae. They'd made a conscious effort not to rein in each other. Still, wasn't there a lingering yearning for the boardinghouse life? And hadn't that yearning made him seem indifferent to her? If so, then the problem was his more than hers. But what was the use of assigning blame at this point? They were starting all over—she would do what she wanted, he likewise.

예문(40)

ST: 날이 토요일. 지연이 배밭에 가자고 한 날이다. 이쪽 직장을 생각해서 토요일 오후를 택한 것 같다. 가자. 지연을 만나는 일에 깊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다. 그저 내 자신의 생활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피차 부담없이 만나는 거다.

TT1985: Tomorrow is Saturday. The day that Chi-yŏn suggested going to the pear orchards. She probably considered my work situation in choosing Saturday afternoon. Let's do it. There's no need to attach a deep meaning to meeting her. Why don't I just meet her when I can, without us burdening each other?

TT2016: Tomorrow was Saturday—the day Chiyŏn had suggested going to the pear orchards. She must have considered his work schedule in mentioning Saturday afternoon. Why not? No harm would come of his seeing her, as long as it didn't become burdensome to either of them.



원문에서는 준태의 생각이 ‘나’의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으며 TT1985에서는 원문과 동일하게 ‘I’의 목소리로 옮겨지고 있으나 TT2016에서는 ‘he’로 바뀌었다. 작중인물의 1인칭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는 생각을 재번역에서는 3인칭 서술자의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시제 변화도 나타났는데 TT1985에서는 인물의 생각이 현재시제로 전달되었으나 재번역에서는 과거형으로 서술 시제를 따르고 있다. 즉, 서술자 관점의 인칭 대명사와 시제를 택하면서, 1인칭 시점에서 등장 인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대신 서술자의 목소리가 섞이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준태의 행위 묘사와 내면 심리 상태의 제시가 변갈아 이어지는 장면(원문 p. 91~92)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점에, 서술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재번역에서는 때로 서술자의 존재감이 커지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 연구는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번역한 브루스 폴턴과 주찬 폴턴의 1985년 *The Moving Castle*과 2016년 재번역본 *The Moving Fortress*를 대상으로 화법 번역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사고제시에서 기존 번역문에 추가되었던 전달절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원문에 있었던 전달절도 삭제하며 서술자의 개입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때로는 인물의 생각과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달절을 삽입하거나 인용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둘째, 직접발화에서 기존 번역문에 추가되었던 전달절을 삭제하고 원문에 있었던 발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표현의 삭제도 나타났으나, 새로운 인물의 발화 등 독자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달절이 추가되었고 발화자나 발화동사 등 전달절의 표현도 수정되었다. 셋째, 지문 속에 포함된 대화문을 별도의 단락으로 만들고 대화문을 분리하여 지문 뒤나 중간에 삽입하는 등 위치를 변경하고 인물의 생각도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는 등 대화문과 사고제시에서 단락 재구성도 나타났다. 넷째, 1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등장인물의 생각이 3인칭 서술자의 관점으로 바뀌는 등 시점 이동을 통해 서술자의 존재감이 커지는 화법 활용도 나타났다. 이처럼 원문의 화법이 대체로 유지된 1985년 번

역본과 비교할 때 2016년 번역본에서는 인물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전달절, 단락 구성, 시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형진(2021: 8)은 번역의 총체성이란 번역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와는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적 완성도 및 탄탄한 서사적 구성과 흐름이며, 번역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에서 분리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번역 비평에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대상이라 지적하고, 완충지대 없이 원본 텍스트에만 절대적으로 충실한 번역은 독자와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소설에서 화법 번역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의 맥락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대표적인 한국문학 번역가의 재번역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에서도 번역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번역문과 다른, 때로는 원문의 형식에서도 벗어나는 창조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문의 화법이 원문의 형식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혹독한 비판이 쉽게 뒤따른다면 번역가에게 주어진 완충지대가 너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화법 번역에서 번역가가 지닐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본 연구는 화법 번역을 원문이나 다른 번역가의 선택과 비교하는 대신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번역가들이 약 30여 년이 지난 후 재번역한 작품에서 달라진 선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의 선택은 원문으로부터의 멀어짐이나 다른 번역가와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아쉬움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쌓은 번역가가 작가의 문학작품을 온전히 구현하는 동시에 번역본이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내린 선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문학번역에서 번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번역 전략의 경향을 찾거나 작품 전체의 화법 번역 전략을 조망하기보다는 일부 사례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소설의 재번역에 나타난 화법 번역의 변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하며, 앞으로 한국문학 번역에서 번역가의 완충지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번역가의 선택을 탐색하고 그러한 선택이 번역의 문학적 완성도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진호 (2015) 「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 『현대소설연구』 59: 29-61.
- 권은희, 성초림 (2014) 「소설 속 대화문에 나타나는 한국어 문장종결어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15(2): 7-32.
- 김경훈 (2018) 「황순원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공간연구」, 『현대소설연구』 72: 5-28.
- 김경희 (2018) 「한불문학번역에서의 이탤릭체 사용」, 『통번역교육연구』 16(3): 43-64.
- 김홍수 (2000) 「소설에서 대화 인용의 방식과 양상」, 『어문학논총』 19: 113-142.
- 박선희 (2015) 「문학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16(5): 39-60.
- 박선희 (2018) 「『목로주점』에 나타난 ‘생각’의 자유간접문체와 번역」, 『동서비교문학저널』 43: 51-74.
- 신혜정 (2016) 「소설 대화문 번역의 단락구성 연구 - 『오만과 편견』의 대화문 중간삽입 지시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4): 95-116.
- 신혜정 (2017) 「한-영 번역소설의 서스펜션 활용 연구」, 『인문사회21』 8(2): 853-870.
- 이상빈 (2019) 「번역문체 비교 연구: 소설 ‘유형의 땅’과 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125-148.
- 이선옥 (2017) 「문학 번역에 있어서 작품 구조 분석의 의의 - 『마교사전』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81: 313-339.
- 이세희, 최희경 (2019)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 문체 비교 연구 - 심리적 시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151-181.
- 이창수 (2016) 「동일 원문 한영 소설 번역문 간 화법 번역 차이 연구」, 『번역학연구』 17(5): 233-249.
- 이창수 (2017) 「황석영 저, ‘삼포가는 길’에 나타난 자유직접화법 번역 양상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번역학연구』 18(2): 151-169.

이형진 (2021) 「번역가의 책무: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주체」, Available at [https://www.wockl.org/assets/pdf/%EB%B0%9C%ED%91%9C03\\_01\\_%EC%9D%B4%ED%98%95%EC%A7%84.pdf](https://www.wockl.org/assets/pdf/%EB%B0%9C%ED%91%9C03_01_%EC%9D%B4%ED%98%95%EC%A7%84.pdf)

정하연 (2015) 「내면서사 번역의 가능성: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3): 247-271.

조의연, 한미애 (2012) 「최대의 적합성으로 본 자유직접화법: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1): 177-203.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 『부랑일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263-283.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Harlow, UK: Pearson Education.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13)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분석자료>

황순원 (1994) 『움직이는 城』, 서울: 문학과지성사.

Fulton, Bruce and Ju-Chan Fulton (1985) *The Moving Castle*, Seoul: Si-sa-yong-o-sa.

Fulton, Bruce and Ju-Chan Fulton (2016) *The Moving Fortress*, Portland, ME: MerwinAsia.

[Abstract]

**Changes in Representations of Speech and Thought in  
*The Moving Fortress*, a Retranslation of a Korean Novel**

Jagyeong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changes in representations of speech and thought in *The Moving Fortress*, a retranslation by Bruce and Ju-Chan Fulton of Hwang Sunwŏn's novel Umjiginŭn sŏng, a work they translated thirty years earlier as *The Moving Castle*, published in 1985. In contrast with the initial translation, which mostly retains the style of the original Korean in terms of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s, the retranslation shows variation and noteworthy changes. To better reflect the mood and make conversations smoother, reporting clauses in thought representations and direct speech are sometimes reformulated and paragraphs are often reorganized, while some inner monologs originally conveyed from a character's point of view are delivered in limited third-person narrative. By looking at these changes in the retranslation by two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ors who have so long been devoted to Korean literary translat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range of choices available and ideally allowable for literary translators to bring their works alive as literature in their own right.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 translator's choice, Bruce and Ju-Chan Fulton

주제어: 문학 번역,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화법 번역, 번역가의 선택,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

김자경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초빙교수

vandi98@naver.com

관심분야: 번역 과정, 번역가, 문학 번역

논문투고: 2022년 5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5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6월 13일

게재 확정: 2022년 6월 18일